

“자위대 北 진입 시 한국 동의 필요없어” 국방부, 일본에 또 뒤통수 맞았다

한·일 국방장관회담...한국 영역 견해차 논란 커질 듯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에서 생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날 회담

에서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회담은 북한을 한국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할 헌법을 근거로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의 뜻을 반복해 표현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8월에 발생한 지뢰 폭발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져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이 한민군 국방부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회담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초계기의 컴퓨터가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와 달리 지상 기지나 미군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북한이 기지에서 내보낸 잠수함 50여 척을 한국군이 대부분 발견하지 못했고 한국해군의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 함선과 달리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췄지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양국의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장래에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위대와의 협력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는 유사시 한

국·미국·일본 간에 첨예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일본의 판단이 다른 경우 한국 정부가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방위 교류 재개를 국내외에 부각하는 형태이며 한국 영역의 해석 문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 법률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도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안보 법제에 관해 한국 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美 “北과 평화협정 논의 관심없다”

성김 미 대북정책대표, 청문회에서 “비핵화 우선해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인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며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0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

기 위해 억지와 외교,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을 차리도록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지도자가 고위 측근들을 숙청하는 습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영국 왕실, 시진핑 부부 극진 대우



영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운데 왼쪽)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부군 필립공(왼쪽)과 함께 20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리는 시 주석 환영 국빈 만찬장에 도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비(왼쪽),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20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시 주석 환영 국빈만찬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영국 新 우호관계’ 시진핑은 부인 앨범...엘리자베스는 셰익스피어 소네트 선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20일 저녁(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준비한 버킹엄궁 국빈 만찬 식탁에 오른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벨모럴산(産) 사슴고기 요리와 영국 산 와인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여왕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을 환영하고자 버킹엄궁 무도회장에서 개최한 만찬의 주 메뉴는 마테이라 와인과 송로 버섯 소스로 양념한 벨모럴산 사슴 허릿살 요리였다고 보도했다.

벨모럴은 영국 왕실의 별궁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 주석 부부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

리,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 등 만찬에 초청받은 170여 명의 귀빈들은 사슴 고기 이외에도 납치와 바닷가재 무스, 삶은 양배추, 감자, 셀러리, 조콜릿, 망고, 라임 등의 요리를 차례로 대접받았다.

와인으로는 영국산 ‘리지부 그로스버너 2009’ <사진>을 필두로 포르투갈산 ‘워르즈 빈티지 포트’, 다양한 프랑스, 남아프리카산 와인이 제공됐다.

만찬에는 비틀스의 노래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알츠, 중국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만찬 초대장에 적힌 드레스 코드는 흰색 타이 차림의 아호복이었지만 영국 언론의 예상대로 시 주석은 넥타이를

하지 않은 중산복 차림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특히 중국 국기 색과 같은 빨간색 드레스 차림의 미들턴 왕세손비가 시 주석의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 이목을 끌었다. 시 주석의 왼쪽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앉았다.

시 주석은 여왕에게 자신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앨범 두 장과 1.18m 크기의 자수, 자기 접시, 목각 장식, 우표첩 등을 선물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편인 필립공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와 셰익스피어 소네트 모음집, ‘로열코라운데버’의 쏘대 세트를 선물했다.

연합뉴스

미·러, 시리아 영공 ‘충돌방지’ 각서

“공습작전 협력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일(현지시간) 시리아 영공에서 양국의 전투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안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미국 국방부와 러시아 국방당국이 밝혔다.

이는 미국에 이어 최근 러시아도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해 공습 작전을 수행하면서 양국 전투기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피터 록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기) 얼마 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록 대변인은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양해각서의 문안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록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사용할 교신용 주파수나 안전 규정, 비상연락체계(하라인) 수립, 다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실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양해각서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협력 지역’의 설정이나 공격 목표 정보공유 같은 내용은 이번 양해각

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록 대변인은 밝혔다.

록 대변인은 특히 양국 전투기들이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미국뿐 아니라 국제연합군의 전투기도 이번 양해각서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록 대변인은 덧붙였다.

현재 미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트 통신은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해 “이 양해각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작전)계획 간에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과 제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좁은 의미에서 협력하는 것일 뿐 시리아 사태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식당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